

화려한 밤의 향연 '군산야행' 위상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

국비확보 3억6000만원

전국 최대 규모 지원

"성공적인 롤모델" 호평

한밤에 거닐며 느끼는 근대문화유산... 군산야행(夜行)이 전국적으로 그 위상을 재확인하며 내년에도 군산의 품격을 드높일 예정이다.

군산시는 지난 15일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국비 공모사업(문화재야행)에 군산야행(夜行)이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22개 지자체가 선정된 2018 문화재야행 공모사업에서 군산야행(夜行)은 전국 최고의 야행으로 손꼽히며 전국 최대 규모인 3억6,000만원의



군산시는 지난 15일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국비 공모사업(문화재야행)에 군산야행(夜行)이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야행의 사업지침에서 군산야행(夜行)을 모범 사례로 직접 제시함으로써, 군산야행

(夜行)이 전국에서 치러지는 야행사업의 성공적인 롤모델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봉근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국비

지원 성과를 계기로 군산야행이 국내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겠다"며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의 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산야행(夜行)은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8가지 테마(8夜)를 주제로 야간에 펼쳐지는 문화행사로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야간형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관람, 문화재 답사, 테마공연, 체험활동 등 50여 가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전국 최대 근대문화유산의 도시, 군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산학협력의 메카 '군산대' 페스티벌 성료

프라이م 사업 운영성과 발표 등 학생·산업체 간 교류협력 증진



군산대학교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단에서는 2017년도 프라이م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2017 산학융합페스티벌'을 20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이노테크 홀 및 황룡문화홀에서 개최했다.

페스티벌은 군산대학교가 융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옵티머스 교육 플랫폼의 세부 프로그램인 크로스-컨버전스 디자인팀의 운영 성과 발표 및 우수팀 시상 등 중심으로 진행됐다.

프라이م사업 관련 산업체의 모의 면접

프로그램 및 강담회도 진행돼 대학과 학생, 산업체 간의 포괄적인 교류 협력 증진의 장이 됐다.

참여 산업체는 운스마린(주), 해양생물자원관, (주)제법, 석도국제채취, 대림산업, 알마일주식회사, (주)GSM, 코리아티엘에스, 진우에스엠씨연구소, (주)백인터내셔널, 창원금속, 세아베스틸 등이 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추석전 각종 대금 조기집행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등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각종 공사비, 사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등을 신속집행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추석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집행절차 과정에서 부서 담당자들의 꼼꼼한 서류 검토와 지출 전 부서에서 선행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신속집행은 실물경기에 직·간접 영향을 줘 추석 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재택 회계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한가위 손님맞이 준비 "바쁘다 바빠"

군산 산업단지 환경정비 집중

군산시가 긴 추석연휴를 앞두고 산업단지 및 오식도동 주택단지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20일 국가산업단지에서 부시장 주재로 현장간담회의를 갖고 근로자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공원, 주택단지, 산단 내 도로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들과 투자지원과, 산림복지과, 자원

순환과, 건설과, 건축경관과, 소통동 등 6개부서가 참여했으며 산단 일제점검과 함께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시에서는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공원 및 도로변 제초작업과 방치된 생활쓰레기 및 불법광고물 수거를 추석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으며, 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와 인도정비, 기타 공공시설물보수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어린이교통공원

토요일 안전체험교육

군산시는 다양한 실생활을 통해 교통·생활·재난·해상 분야에서 재난 대처능력과 생활안전의 소중함을 배우는 군산시의 어린이교통공원 내 안전체험관이 9월부터 토요일 자율관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안전체험교육

으로 전환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위치한 군산어린이안전체험관은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생활 습관화 등을 위해 체험형·현장형 다양한 종합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고 군산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9월부터 토요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거리퍼레이드 행렬 눈요기 특특

군산대 학생 등 400명 참가

전공 살린 화려한 퍼포먼스

4km구간 2시간 가량 이어져

군산대학교는 20일 대학가를축제인 황룡축제를 앞두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거리퍼레이드를 진행했다.

교직원 및 각 학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거리퍼레이드는 군산상고-신설사거리-내운사거리-군산대학교에 이르는 4km 구간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

풍물패를 선두로 해 거리퍼레이

드에 참가한 학생들은 각 전공을 살린 다양한 퍼포먼스로 화려한 눈요기를 선사했고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거리퍼레이드에 참가한 학과 중 우수학과는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2017학년도 황룡축제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군산대학교 대운동장과 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산대학교는 매년 축제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축제가 지역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중소기업융합대전 내달 23일 광파르

지역연합회장단·이사회

익산시 방문 사전 답사

2017년 중소기업융합대전 및 한마음 대회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가운데 20일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역연합회장단 및 이사회 20여명이 사전답사를 위해 익산시를 방문했다.

2017년 중소기업융합대전 및 한마음 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및 (사)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주관으로 10월 23~24일까지 2일 동안 원광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유

성과 중소기업 간 융합 지원 확대와 교류·협력 문화 조성과 확산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업종교류 및 협력 활성화와 창의적 융합활동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정부포상과 컨퍼런스, 모범교류회 활동경진대회,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매칭상담회, 전시회, 융합사례, 투자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날 사전답사 참가자들은 개최 예정 장소인 원광대 체육관을 둘러보

고, 보석박물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특히 정현율 시장은 사전답사 참가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사)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김정식 회장은 "시정에 바쁜 와중에도 답사를 환영해주고 2017년 중소기업융합대전 및 한마음대회에 깊은 관심과 행정적인 지지를 보내준 익산시에 감사드린다"며 정현율 시장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정현율 시장은 사전답사팀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역연합회장과 이사회에게 "기업하기 좋은 익산을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2017년 중소기업융합대전 및 한마음대회를 2009년부터 친목중심에서 2015년부터 지식중심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순회 개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00여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